

Press Release

베리어프리를 넘어 문화다양성을 향해 걷어가는

장애예술 국제심포지엄 《포용적 사회, 새로운 물결》 개최

- 국민일보·국립중앙박물관 공동주최, 9월 21일(목)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
- 영국 터너상 후보 Project Art Works, 일본 ‘에이블아트재팬’ 대표 시바자키 유미코,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광주비엔날레 박서보예술상 엄정순 등 다채로운 연사 참여

국민일보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애예술 국제심포지엄 ‘포용적 사회, 새로운 물결’이 9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시, 공연, 문학 등 각 장르를 불문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없애고 포용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장애인들이 갖는 특수성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기획한 손영옥 박사(국민일보 문화전문기자 겸 국장대우)는 “‘포용적 사회’ ‘포용적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새로운 형태의 돌봄 공동체의 출현을 자극하며 우리 사회가 문화다양성을 실천하는 보다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며 “특히 장애예술이 갖는 신선한 에너지와 창의성은 예술계에 자극을 주어 전문 미술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세상을 위해 언론사 최초로 발달장애 신진작가 공모전인 ‘아르브뤼미술상’을 기획한 국민일보와 베리어프리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연사로 ‘뇌과학계의 엔터테이너’ 뇌과학자 박문호, 2021 영국 터너상 후보에 오른 신경다양성 아티스트 창작공동체 ‘프로젝트 아트 워크스(Project Art Works)’, 비장애 무용수와 함께 포용적 예술을 실천하는 장애 무용수 김원영을 비롯하여 일본 장애예술의 구심점인 일본 ‘민들레의 집’ 활동가이자 ‘에이블아트재팬’ 대표 시바자키 유미코, 장애아동의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베트남 사회적 기업 ‘토헤(TOHE)’의 전 CEO 반 판, 시각장애인 예술 교육 공동체 ‘우리들의 눈’ 디렉터이자 시각예술가로 제1회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을 수상한

국민일보×국립중앙박물관
제1회 장애예술 국제심포지엄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sability Art
hosted by The Kukmin Daily & National Museum of Korea

엄정순이 참여한다.

심포지엄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이자 국회의원 김예지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제1부 ‘정상성의 틀을 깨고’, 제2부 ‘장애 예술과 기업·사회의 상생’, 제3부 ‘진화하는 예술 공동체’, 제4부 ‘라운드테이블’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제2부와 제3부 사이에 예술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엘로우 닷 컴퍼니’의 작품 상영과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 박문호는 아름다움에 대한 신경학적 접근을 통해 장애/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질문을 던지고, 김원영은 장애인에게 매우 폐쇄적이었던 한국의 공연예술계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 과정과 그 한 가운데에서 공연자로 살아갔던 자신의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제2부에서 시바자키 유미코와 반 판은 각각 일본의 에이블 아트 운동과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 ‘토헤(TOHE)’의 창립 이념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 사례를 제시한다. 3부에서는 시각예술가 엄정순이 2009년부터 진행하며 예술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장님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본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하게 하며, 영국의 신경다양성 아티스트 창작 공동체 ‘프로젝트 아트 왁스’ 역시 지난 25년간 실천해온 실험적인 예술 프로젝트와 철학을 이야기한다. 프로젝트 아트 왁스는 신경다양성 아티스트와 그 가족, 그리고 미술 활동가들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돌봄 공동체이자 창작 공동체로서 ‘돌봄이란 무엇인가’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상상력을 동시에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ukmin_daily_art/

신청링크

<https://forms.gle/9eLKSynncTPqTLYJ6>

국민일보×국립중앙박물관
제1회 장애예술 국제심포지엄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sability Art
hosted by The Kukmin Daily &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민일보×국립중앙박물관
제1회 장애예술 국제심포지엄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sability Art
hosted by The Kukmin Daily & National Museum of Korea

포용적
N E W W A V E

사회,
FROM THE

새로운
I N C L U S I V E

물결
S O C I E T Y

기조발표	장애예술, 장애를 말한다 김예지 국회의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영상 작품 상영	<전시장의 투명한 벽은 시에나 색으로 들린다> 작품 상영과 해설 엘로우 닷 컴퍼니
[1부] 정상성의 틀을 깨고	뇌와 아름다움 박문호 뇌과학자 무대 위에 오르기 위해 어떤 자격이 필요했나 김원영 변호사, 무용수	[3부] 진화하는 예술 공동체	'장님코끼리만지기'라는 거짓말 임정순 시각예술가, 우리들의눈 디렉터 영국의 신경다양성 아티스트 공동체 Project Art Works: 권리와 재현 프로젝트 아트웍스
[2부] 장애 예술과 기업·사회의 상생	일본의 에이블 아트 운동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나? 시바자키 유미코 에이블아트재단 대표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 '토헤(Tohe)' - 장애 아동에게 예술을, 지역 사회에는 영감을 반 판 토헤 이사, 전 CEO	[4부] 라운드테이블	모더레이터 손영욱 국민일보 문화체육부 국장, 미술경영학 박사 토론자 임근혜 아르코미술관 관장 박은선 리스투더시티 디렉터 김영현 슌 비평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2023.9.21.(목) 13:30-18:00

주최 | 국민일보 국립중앙박물관 주관 | 밀알복지재단 후원 | 타인씨재단 선정 복지재단 est.1999